

## 書 評

### 《요재지이》

蒲松齡 著, 김혜경 역  
서울 : 민음사, 2002.8.  
신국판, 전6권

裴 柄 均\*

《聊齋志異》는 중국의 고전소설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면서도 일반인, 특히 국내 독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난해한 문어체로 기록된 文言小說이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긴 하나 국내의 번역은 의외로 빨라 일찍이 60년대에 첫 번역이 나온 바 있고<sup>1)</sup>, 그 후로도 간간이 몇 가지 번역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본에서 나온 것을 중역한 것이거나 일부 작품들을 뚜렷한 선별 기준 없이 옮긴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술적 가치는 적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한때 일부 작품을 번역해보기도 했지만<sup>2)</sup>,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금하게 하였는지라 지금 돌아보면 낮이 붙어질 따름이다. 인젠가는 제대로 된 번역에 도전해야지 하는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게으른 천성이 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혜경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崔仁旭 역, 聊齋志異 상중하, 서울 : 을유문화사, 1966  
2) 배병균 역, 요재지이 상중하, 서울 : 도서출판 진원, 1994

교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자신의 원래 전공도 아닌데다 혼자 힘으로 막대한 분량의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역자의 말에 따르면 무려 10년의 공력을 들여 기어이 해내고 말았다. 그것도 전 작품을

김혜경 교수의 번역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聊齋志異》의 전 작품을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聊齋志異》는 거의 500편에 이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많은 작품들을 일일이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중에는 난해한 문장과 수많은 전고로 가득 찬 작품이 적지 않음에라. 또 번역의 텍스트로 삼은 것도 역자가 밝혔듯이 현재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완비된 판본<sup>3)</sup>이라는 점은 이 번역의 의의를 한층 더해 준다 하겠다. 여기에 첫 권의 뒤에 실린 상세한 해제와 매 권의 뒤에 있는 주석은 일반 독자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장점으로 보인다.

이 번역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려한 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역자는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순수한 우리말로 치환하려고 애쓴다. 한두 예를 보자.

하생이 오래도록 궁핍거리며 나올 생각을 앓자, 채 노파는 서운을 주살 나게 부르며 하생을 돌려보내라고 재촉했다.

(生不出, 媼頻喚瑞雲以促之.) <瑞雲>(2:48)<sup>4)</sup>

그가 거울을 받들고 들여다보니 봉선은 기름한 이마에 박속같이 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손아귀에 쥐일 듯 귀엽게 웃음 짓고 있어 완전히 눈앞에 선 사람이었다.

(攬鏡視之, 見畫黛彎長, 瓠犀微露, 喜容可掬, 宛在目前.) <鳳仙>(4:282)

위의 예들은 훌륭한 번역은 무엇보다 모국어 잘 구사하는 바탕 위에

3) 《全本新注聊齋志異》, 북경 : 인민문학출판사, 1989

4) 앞의 숫자는 번역본의 권수, 뒤는 쪽수를 나타낸다. 이하 마찬가지

서 나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자가 이 방면에 든든한 소양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밖에 편집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삽화와 화보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더해준다는 점이다. 또 매 그림 밑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설명을 첨가하고 있는 것도 독자를 위한 친절한 배려라 하겠다.

누구나 만족하는 완벽한 번역은 없는 법. 김혜경 교수의 번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문어체의 특성이 대개 그러하듯 《聊齋志異》원문 곳곳에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 특성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다보면 때때로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조금 부연하여 옮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작자가 옷을 비껴 입다 죽었으니, 묘생도 편견이 없는 자임을 알 수가 있다. 때문에 그런 인간을 혐오하고 화를 내던 이는 묘생이면서 한편 묘생이 아니었던 것이다.

(然嫉妬者易服而斃, 則知苗亦無心者耳。故厭怒者苗也 - 非苗也。) <苗生> (2:17)

밑줄 친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유생을 혐오해서 화를 낸 것은 묘생이었지만, 그런 인간을 보고 화를 낼 자는 묘생뿐만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 수염과 눈썹을 매달고 큰 도시를 공공연히 돌아다닌다면 놀라서 달아나지 않을 자가 거의 없으려다!

(若公然帶鬚眉以遊都市, 其不駭而走者, 蓋幾希矣) <羅刹海市>(3:35)

→ 만약 수염과 눈썹을 그대로 둔 맨얼굴로 도회지를 공공연히 돌아다닌다면 놀라서 달아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관리들을 모신 우리가 항아리 밑에 깔린 채 은폐되는 많은 사건들을 어찌 언급할 수 있으랴!

(何怪覆盆之下多沉冤哉!) <臙脂>(5:294)

→ (사정이 이러하측) 암흑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자가 많은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는가!

《聊齋志異》 일부 작품의 말미에는 작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異史氏曰’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 蒲松齡은 독자 또는 비평가의 입장이 되어서 본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품의 주제를 재확인할 수 있고, 또 본문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주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작가는 때때로 이중에서 본문의 이야기와 별 관련이 없는 듯한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異史氏曰’은 본문과 관련하여 여러 번 곱씹어야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천하의 일이란 많이 모으면 질투를 부르고 사랑이 지나치면 마가 끼는 법이다. 여옥이란 요물은 책의 마귀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허황된 면이 없지 않지만 낭옥주의 회한한 병은 부득불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天下之物, 積則招妒, 好則生魔, 女之妖, 書之魔也。事近怪誕, 治之未爲不可。) <書癡>(2:138)

→ 모름지기 천하의 물건은, 많이 쌓아두면 질투를 초래하고 지나치게 좋아하면 마가 따르는 법이다. 여옥이란 요물은 책을 지나치게 좋아하였기에 마가 끼어 생겨난 것이었다. 이 일은 원래 허황된 점이 있었으므로 한번 다스려 처벌하는 것이 안 될 것도 없었다.

이리하여 갖가지 우여곡절이 생겨나면서 그들을 결합시키려는 사람을 한없이 고심하게 만들었으니,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참말로 힘들구나!

(而離離奇奇, 致作者無限經營化工亦良苦矣。) <青梅>(2:430)

(밑줄 친 부분) → 한없이 고심하게 만들었고, 조물주 또한 실로 많은

애를 써야만 했다.

몸에 우둔을 상징하는 표지가 있으면 굳이 과거를 보지 않아도 공명이 뒤따르고 본인이 직접 맞이하지 않아도 미모의 여인이 저절로 손안에 떨어진다 하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추고 노력하여 향상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별 것인가?

(庸之所在, 桂藉可以不入闈而通, 佳麗可以不親迎而致; 而況少有憑借, 益之以鑽窺者乎!) <周克昌>(4:219)

(밑줄 친 부분) → 저절로 손안에 떨어진다고 한다 하물며 어느 정도 기댈 데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권세에 빌붙을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周克昌>의 이야기는 우둔한 사람을 긍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듯하나, 작가의 이 말을 두고 보면 오히려 우둔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고,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과 권세에 대한 아부가 출세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황제가 이듬해에 다시 왔던 것은 똑같은 재난이 발생할 줄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삼 년이 지나도록 등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복수 계획이 나름대로 결정되어서였고,

(次年復至, 蓋不料其禍之復也; 三年而巢不移, 則報仇之計已決;) <禽俠>  
(6:255)

<禽俠>의 경우는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본문의 이야기에 비추어보면 번역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황제가 삼 년이 지나도록 등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똑같은 재난이 발생할 줄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듬해에 다시 왔던 것은 복수 계획이 나름대로 결정되어서였고,

이 오류는 아마도 판본상의 문제이거나, 또는 작가가 애초 잘못 기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소하긴 하나 자칫 다른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보인다.

그 누가 노름판의 인물인지 물어보자.

(試問賭中誰最善?) <賭符>(2:404)

→ 노름판에서 가장 잘된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바람에 날리듯 잘도 뒤바뀌는 그의 식견이 참으로 아쉽기만 하구나!

(惜乎其見之搖也!) <郭秀才>(3:151)

→ 그의 생각이 흔들린 것이 참으로 아쉽구나!

충(忠)과 효(孝)에 뜻을 굳건히 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음이 가장 중요한 뭔가가 아닐까? 기특하도다, 석방평이여!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던가!

(忠孝志定, 萬劫不移, 異哉席生, 何其偉也!) <席方平>(4:121)

→ 충효의 뜻이 굳건하여 온갖 고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니. 놀랍도다, 석방평이여!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던가!

번역된 책을 두고 보았을 때 약간의 개인적인 불만도 있다. 이왕이면 삽화가 좀더 많이 실렸더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것이고, 삽화와 표지의 그림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또 주석은 조금 더 자세히 달되, 각 페이지나 해당 작품의 뒤에 두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는 전체적인 번역의 성과에 비추어보면 그야말로 '옥에 티'에 불과하다. 이 번역본은 어느 모로 보나 '중국 언어예술의 보고'를 또 다른 언어로 재현하였다는 찬사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본다.